

미원주민 주일 주보속지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주일

우리가 보내는 미원주민 주일 헌금은 그들의 사역 가운데 미원주민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할 신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쓰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지역 사회를 섬길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들에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매와 형제 된 이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부족민들이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이들로 만드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인류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견뎌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최고의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담은 미원주민들로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 아나타 필립스 목사,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 은퇴 목사

“원주민 공동체와 화해하고 그를 재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 체본 커넬 주니어 목사, 세미놀 부족 출신,
연합감리교회 국립 원주민 종합 계획 최고 지도자

“우리는 교회 내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원주민들이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기여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크게 기여해 왔고, 교회의 미래에 더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데이비드 윌슨 목사,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 감리사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주일

미원주민 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행하는 6개의 특별 헌금의 하나로, 원주민 목회자들과 교회들 및 신학생들을 준비시키고 힘을 실어주는 데 사용되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우리가 드린 미원주민 주일 헌금은 다음과 같은 곳에 사용되었습니다. :

- 테네시 연회의 원주민 사역부가 진행한 3일간의 행사, “미원주민 주춧돌과 지역 상호작용(Native American Rock and Community Interaction)”을 후원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미원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 캔자스시티 캔자스에서 진행된 내셔널 유스 2019 행사(7/10-14, 제자사역부의 전미 유스 미팅)에, 25인의 오클라호마 원주민 선교연회 소속 원주민 중고등학생들 및 인도자들을 보내는 일을 후원하였습니다.
-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오클라호마의 치호와 연합감리교회(Chihowa UMC)의 새 성전 건축을 후원하였습니다.
- 연합감리교회를 대표해 유엔 토착민 이슈에 관한 영구 포럼(UN Permanent Forum on Indigenous Issues)에 참가한 대표단 13 명의 여행 경비를 후원하였습니다.
- 미원주민 신학생 장학금으로 \$95,245를 후원하였습니다.

체크 메모난에 “미원주민 주일”을 적어 소속된 교회에 헌금해 주세요.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문.
한인연합감리교회®